가성비 끝판왕 'EV9'…국내 첫 3열 대형 전동화 SUV

기아 '더 기아 EV9' 사전 계약
1회 충전 주행거리 501㎞ 인증
7671만원부터 8379만원까지

기아는 '더 기아(The Kia) EV9'의 사전 계약을 시작했다고 8일 밝혔다.

EV9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에 기반한 두 번째 모델로, 기아 라인업 상 새로운 플래그십이자 전에 없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나가는 가장 혁신적인 국내 최초 3열 대형 전동화 스포츠유틸리티차(SUV)다.

EV9은 웅장함이 돋보이는 외관과 새로운 차량 경험을 선사할 실내 공간을 갖췄다.

'디지털 타이거 페이스'가 적용된 전면부는 '디지털 패턴 라이팅 그릴'과 '스몰 큐브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 '스타맵 LED DRL(주간주행등)' 등 깔끔한 차체 면과 조화를 이루는 다양한 조명으로 미래 지향적 느낌을 구현했다.

이와 더불어 차체 전반에서 느껴지는 우아한 볼륨감과 곧게 뻗은 선으로 구현한 다각형의 대비를 통해 고급스럽고 단단한 이미지를 연출하며 정통 SUV로서의 웅장한 이미지를 동시에 담았다고 기아는 설명했다.

EV9은 99.8㎾h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하고 3D 언더커버, 공력 휠, 프론트 범퍼 에어커튼을 적용해 기아 전기차 라인업 중 가장 긴 501㎞의 1회 충전 주행거리를 달성했다.

또 GT-line 기준 최고출력 283㎾(384마력), 최대토크 700Nm를 기반으로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까지 5.3초만에 도달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기아는 EV9에 ▲350kW급 충전기로 24분만에 배터리 용량 10%에서 80%까지 충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400V·800V 멀티 초고속 충전 시스템 ▲충전소 도착 시점 배터리 온도 제어로 충전 속도를 최적화하는 배터리 컨디셔닝 ▲후석 냉난방 독립제어로 소모전력을 줄여주는 3존 독립제어 풀오토 에어컨 등 전력을 효율적으로 충전·운영할 수 있는 기능을 적용했다.

특히 고속도로 부분 자율주행(HDP)과 기아 커넥트 스토어, 무선(OTA)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 SDV 기반의 차량으로 최고 수준의 신기술이 대거 적용됐다.

고속도로 부분 자율주행은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 본선 주행 시 운전자가 스티어링 휠을 잡지 않아도(Hands-Off) 앞 차와의 안전거리 및 차로를 유지하며 최고 80㎞/h의 속도로 주행할 수 있는 레벨 3 조건부 자율주행 기술이다.

EV9의 사전계약은 기본모델(에어·어스 트림)과 GT-line으로 진행하며 기본모델의 경우 2WD와 4WD 구동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기본모델 에어 트림은 ▲12.3인치 클러스터·5인치 공조·12.3인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디스플레이를 매끄럽게 이은 파노라믹 와이드 디스플레이 ▲고속도로 주행 보조 2(HDA2) ▲10 에어백 등 안전, 인포테인먼트 핵심 사양이 기본 적용됐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에 기반한 기아의 두 번째 모델인 '더 기아 EV9'의 사전계약이 시작됐다. EV9은 국내 최초 3열 대형 전동화 SUV로 웅장함이 돋보이는 외관과 새로운 차량 경험을 선사할 실내 공간<왼쪽>을 갖췄다. <기아 제공>

어스 트림은 ▲1열 릴렉션 컴포트 시트 ▲운전석 에르고 모션 시트 ▲스티어링 휠 엠블럼 라이트 ▲듀얼 칼라 앰비언트 라이트 ▲12인치 대화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등이 기본 탑재됐다.

GT-line은 플래그십 EV의 품격에 부합하도록 범퍼, 시트 등에 전용 내·외장 디자인 요소를 대거 적용했으며 고속도로 부분 자율주행, 디지털 센터 미러, 디지털 사이드 미러 등을 선택 적용할 수 있다.

EV9의 외장 색상은 ▲아이보리 매트 실버 ▲오션 매트 블루 2종의 무광 컬러와 ▲오션 블루 ▲페블 그레이 ▲아이스버그 그린 ▲스노우 화이트 펄 ▲판테라 메탈 ▲오로라 블랙 펄 ▲플레어 레드 등 7종의 유광 컬러를 포함 총 9가지로 운영될 예정이다.

내장 색상은 기본모델의 ▲블랙 ▲브라운 ▲라이트 그레이 3종과 GT-line 전용 ▲블랙&화이트 ▲브라운 ▲네이비 3종 등 총 6가지이다.

EV9의 가격은 ▲에어 2WD 7671만원 ▲GT-line 8781만원이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고시 등재 완료 후 세제 혜택이 적용될 경우 ▲에어 2WD 7337만원 ▲GT-line 8379만원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전기자 구매보조금을 반영하면 실구매가는 이보다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아 관계자는 "국내 최초 대형 전동화 SUV EV9은 지난 3월 온라인 세계 최초 공개 및 서울모빌리티쇼를 통한 실차 공개 이후 많은 고객분들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며 "최대한 많은 고객분들께 보조금 혜택을 드리고 계약 후 인도 받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을 줄여드리고자 양산 및 국내 정부 주요 부처 인증이 완료되는 모델부터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기아 셀토스 '더 세련됐네'

연식변경 '2024 셀토스' 출시
디자인 고급화·합리적인 가격
판매가 2071만원~2705만원

국내 자동차 시장에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열풍을 불러온 기아의 셀토스가 더 세련된 모습으로 돌아왔다.

기아는 도시적인 세련미와 다양한 안전·편의 사양을 갖춘 소형 SUV 셀토스의 연식 변경 모델 '더(The) 2024 셀토스'를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했다고 8일 밝혔다.

셀토스는 기아 오토랜드 광주 1공장에서 생산되는 차량으로, 국내 소형 SUV 인기를 주도했던 대표적인 모델이다. 국내 자동차업계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소형 SUV 판매 1위 왕좌를 굳건히 지켜왔다.

기아가 이번에 '더 2024 셀토스'를 선보이면서 소형 SUV 시장에 다시 활기가 돌지 주목된다.

이날 기아에 따르면 더 2024 셀토스는 고객 선호 사양을 확대 적용해 상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내외장 디자인을 고급화한 것이 특징이다.

기아는 인기 트림인 프레스티지에 전자식 변속 다이얼과 패들 시프트를 기본화하고 전 트림에 1열 시트백 포켓을 기본 적용해 고객 만족도를 높였다.

또한 프레스티지 트림에서 선택 가능한 모니터링 팩에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를 추가해 상품성을 강화했다.

기아는 내외장 고급화를 통해 셀토스의 디자인 완성도를 더욱 높였다고 설명했다.

기아는 도시적인 세련미와 다양한 안전 및 편의사양을 갖춘 셀토스의 연식 변경 모델 '더 2024 셀토스'를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갔다. <기아 제공>

우선 시그니처 트림에 블랙 하이그로시 소재의 도어 스위치 패널을 적용해 고급감을 강화했다. 또 최상위 트림인 그래비티에는 새로운 디자인의 전용 블랙 하이그로시 라디에이터 그릴을 적용해 한층 강인하면서도 세련된 인상을 구현했다.

더 2024 셀토스의 판매 가격은 개별소비세 3.5% 적용 기준 1.6 가솔린 터보 모델이 ▲트렌디 2170만원 ▲프레스티지 2493만원 ▲시그니처 2665만원 ▲그래비티 2705만원이다.

2.0 가솔린모델은 ▲트렌디 2071만원 ▲프레스티지 2395만원 ▲시그니처 2567만원 ▲그래비티 2606만원이다.

기아 관계자는 "더 2024 셀토스는 고객 선호 사양을 기본 적용하고 내외장 디자인을 고급화해 상품성을 더욱 강화했다"며 "뛰어난 상품성과 합리적인 가격을 바탕으로 소형 SUV 시장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셀토스는 첫 출시 후 약 3년 만에 글로벌 판매량 100만대 고지에 올라섰다. 공식 출시된 2019년 7월부터 올 1분기(1~3월)까지 국내외 시장에서 모두 107만6781대 판매됐다. 현대차그룹의 소형 SUV 중 판매량 100만대를 돌파한 '밀리언셀러'는 2021년 현대차 코나에 이어 올해 셀토스까지 2종이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2023 TCR 차이나 챔피언십' 출정식에서 현대차 엘란트라 N TCR로 참가하는 선수들과 현대차 관계자 등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 <현대차 제공>

토요타 플래그십 모델 '크라운' 사전계약 시작

크로스오버 모델 '2.5ℓ 하이브리드' 등 2종

다음달 5일 공식 출시를 앞둔 토요타의 플래그십 모델 '크라운'<사진>의 사전계약이 시작됐다.

8일 토요타코리아에 따르면 이날부터 전국 토요타 공식 딜러 전시장에서 '크라운'의 사전 계약을 실시한다.

토요타의 '혁신'과 '도전'을 상징하는 플래그십 모델인 '크라운'은 지난 1955년 토요타 최초의 양산형 모델로 출시, 지난해 16세대까지 출시됐다. 세단과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결합한 크로스오버를 주축으로 세단과 스포츠, 에스테이트 등 4가지 타입이 있다.

국내 출시되는 크라운은 '크라운 크로스오버' 모델로 2.5ℓ 하이브리드(HEV)와 2.4ℓ 듀얼 부스트 하이브리드(Dual Boost HEV) 등 총 2가지 파워트레인이다.

크로스오버에는 새롭고 모던하게 디자인된 크라운 엠블럼, 차량의 폭을 강조하면서 날카롭고 길게 뻗은 전면부의 전방 지향적인 해머헤드(Hammer Head) 디자인, 전면부를 가로지르는 주간 주행등(DRL)이 적용됐다.

후면부에는 수평 LED 테일램프와 함께 일자형 LED 램프로 유니크한 디자인을 구현해 크라운만의 정체성을 강조했다.

인테리어는 아일랜드 아키텍처(Island Architecture) 컨셉으로 직관적이면서도 편안한 실내 공간을 갖췄다.

멀티 인포메이션 디스플레이(MID)는 12.3인치로 뛰어난 시인성을 제공, 터치형 센터 디스플레이에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 '토요타 커넥트'가 적용됐다.

크라운은 승차감과 주행감각도 향상됐다. TNGA-K 플랫폼을 기반으로 설계된 크라운은 2.5ℓ 하이브리드 모델의 경우 2.5ℓ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과 e-CVT(전자식 무단변속기)가 결합되어 시스템 총출력 239마력을 제공한다.

크라운 2.4ℓ 듀얼 부스트 하이브리드 모델은 2.4ℓ 가솔린 터보 엔진, 다이렉트 시프트 자동 6단 변속기, 고출력의 수냉식 리어모터 등으로 강력한 성능을 갖췄다.

강대환 토요타코리아 상무는 "토요타 크라운은 지난 2월 선보인 RAV4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에 이어 다양한 전동화 차량의 선택지를 제공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새로운 전환점이 될 두 번째 모델"이라고 밝혔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현대차 '아반떼 N TCR' 'TCR 차이나 챔피언십' 출전

12~14일 상해 국제 서킷서 1R

현대자동차는 8일(현지시각) 중국 상해 국제 서킷에서 '2023 TCR 차이나 챔피언십' 출정식을 열고 고성능 경주차인 엘란트라 N TCR(국내명 아반떼 N TCR) 8대가 대회에 출전한다고 이날 밝혔다.

TCR 차이나 챔피언십은 글로벌 최정상급 투어링카 대회 'TCR 월드 투어'와 동일하게 제조사의 직접 출전은 금지하고 제조사의 경주차를 구매한 프로 레이싱팀이 출전하는 '커스터머 레이싱'이다.

이번 대회에는 마틴 카오(Martin Cao), 앤디 얀(Andy Yan), 레이니 해(Rainey He), 장첸동(Zhang Zhen Dong), 양 시아오 웨이(Yang Xiao Wei) 등 중국 유명 프로 드라이버들이 속한 '현대 N(Hyundai N)'과 'Z. 스피드 N(Z. Speed N)' 등 총 2개 팀이 엘란트라 N TCR로 참가한다.

대회는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상해 국제 서킷에서 열리는 1라운드를 시작으로, 저장성과 청두, 마카오 등에서 오는 11월까지 총 6라운드가 개최된다.

한편, 현대차는 지난 4월 중국 '2023 상해 국제 모터쇼'에서 '더 뉴 엘란트라 N' 디자인을 세계 최초로 공개하며 고성능 N브랜드의 중국 시장 진출을 본격 선언했다. 현대차는 중국에서 올해 하반기 더 뉴 엘란트라 N 출시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N브랜드 최초의 전동화 모델 '아이오닉 5 N'을 선보이는 등 고성능 N 모델 출시를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박기웅 기자 pboxer@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